**세명의 창조신**

브라흐마 : 우주의 창조

비슈누 : 우주의 유지

시바 : 우주의 파괴

**우주의 창조**

세명의 창조신은 끊임없이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시키면서 여러 우주를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과를 목도했으나 그들의 막강한 권능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불가능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되는 순간에 정해지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은 그저 완벽한 존재로서 머물 뿐이었고, 불완전한 피조물들은 끝내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을 맞이했다. 이제 그들은 단 하나의 과업을 위해 또다시 수많은 우주를 창조하고있다.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서 각성하기 위해서는 무궁한 번뇌와 번민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주를 불완전한 세상으로 창조하여 피조물들이 번뇌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균형과 소멸**

그렇게 창조된 우주는 태생적으로 품고 있는 불완전함에 기인하여 끊임없는 분쟁의 장이 되었다. 몇 겁의 시간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생겨나고 사라지며, 부딪히고, 싸워왔다. 비로소 번뇌가 넘치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 불완전함이 결국 우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종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창조신들의 입장에서 여간 골치거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마다, 비슈누가 나서서 균형을 조율했다. 그러나 절대자가 존재를 드러내며 전면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준다면 번뇌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든다는 계획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장막 저편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였다. 그러한 비슈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주가 창조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음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시바가 나서서 우주를 파괴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과연 몇 번째 우주일까?

분리된 3개의 차원

**마신 칼리**

브라흐마는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개념들을 빚어냈다. 이윽고 그로부터 수많은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는데 훗날 인간들이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 중 지옥의 창조된 존재가 있었으니, 브라흐마는 그것에게 ‘칼리’라는 이름과 세계의 진실을 속삭였다. 칼리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브라흐마가 걸어둔 제약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다. 전 우주가 시초신들의 실험장이라는 사실에 절망한 칼리는 혼돈 그 자체이기도 한 칼리는 끊임없이 혼돈을 갈구하며,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고 있다.

스토리

청풍 리화지점 남부물류센터 배달 2팀 팀장 슈리는 귀중품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호박석사원까지 배달하는 임무를 받게 된다. 슈리는 호박석사원을 향해 나아가던 도중 모험가들을 노리는 도적때의 습격을 받게 되지지만 실력을 발휘해 도적들을 격퇴한다. 그러나 분명히 죽였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공격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시체가 갑작스럽게 괴물로 변하여 달려드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한다.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슈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잃게 된다.

“의지가 계속되는 한 기회 또한 계속될 것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슈리는 적은 온데간데없고 상처는 말끔히 치유되어 있는 상황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다 의뢰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내 의뢰품의 정체가 신물이었으며, 신물에 깃들어 있는 가호가 자신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것을 깨닳는다. 이에 슈리는 신물의 배달을 맡긴 의뢰주가 비범한 인물이 아니며, 지금과 같은 이상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주가 배달을 맡겼던 장소인 호박석사원에 사태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호박석사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죽림향과 호박석마을을 지나 마침내 호박석사원에 도착한 슈리는 이 모든 이변은 윤회의 고리가 망가졌기 때문이며, 배후에 마신 칼리가 있음을 알게된다. 슈리는 칼리에 의해 타락한 수도승들을 쓰러뜨리고 호박석사원에 보관되어있던 신물과 자신이 가져온 신물의 힘을 이용해 비틀어졌던 윤회의 법칙을 바로잡고 사태를 마무리한다.

공간적 배경

* 지도 첨부

대륙 서남쪽에 위치한 대나무 군락지 죽림향과 죽림향에 위치한 호박석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호박석마을이 중심 배경

단체

우편물 배달대행, 청풍 – 주인공이 속한 단체

청풍은 대륙 북서부에서 활동하던 중소규모의 상회였다. 대륙을 통치하던 바유가 사라지고 대륙 전체가 전란에 휩싸이며 치안이 악화되자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도적 때가 들끓게 되고 수많은 상인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시 청풍의 행수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무장세력을 육성하여 과감하게 배달/운송업에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둔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국 최대규모의 운송 업체로 성장하여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대륙 동부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호박석사원

죽림향에 위치한 사원으로 죽림향 한가운데 높게 솟아있어 255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 죽림향 공중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신물을 모시기위해 세워졌다. 255계단 또한, 신물에 접근하기위해 돌을 쌓아올린 흔적이다. 이름의 유래는 본당 내부를 호박석으로 꾸며 놓았기 때문이다.

호박석마을

여행자, 순례자 등 여러 이유로 호박석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호박석사원을 중심으로 사원의 계단아래에 형성된 마을이다. 규모는 약 80가구정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숙박, 요식,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있다.

도원 ㅠ

대륙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연 가문이 다스리고 있다

시간적 배경

전국시대의 개막

세상은 전란에 휩싸여있다. 황제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 후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었다. 만나지 못할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에 지친 대신들은 궁을 떠났으며, 텅 빈 옥좌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왕이 없으니 왕을 중심으로 했던 행정체계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다. 산과 들에는 도적들이 들끓었으나 이들을 잡아들여야 할 군인 마저도 통제를 잃고 민간인을 공격하고 수탈했다. 그때 대륙 남쪽에서 제후인 남 가문이 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거병하니 잇따라 지방의 수많은 유력자들이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군사를 일으켰다. 바야흐로 전국시대의 시작이었다.

주인공의 이동경로 : 대 도시 리화 -> 대나무 군락지 죽림향 -> 호박석 마을 -> 호박석 사원